

◎ 시를 읽고 말하는 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.

학년

반, 이름

세계의 아이들

방콕의 뱃집에서 아기가 울었다.
응아응아 하고 울었다.
밀림의 움집에서 아기가 울었다.
응아응아 하고 울었다.

내 고향 초가 마을에서 듣던
우리 아기의 울음소리였다.
나라와 인종은 달라도
울음소리는 모두 같았다.

파타 언덕을 달리며
맨발의 아이들이 깔깔거렸다.
발리의 파도를 안고 뒹굴며
노랑머리 아이들이 깔깔거렸다.

내 고향 들판에서 뛰놀던
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였다.
생활과 말씨는 달라도
웃음소리는 모두 같았다.

Q 방콕의 뱃집 아기와 밀림의 움집 아기는 어떻게 우나요?

Q 파타 언덕의 아이들과 발리의 아이들은 어떻게 웃나요?

Q 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?